

여행&카페소개

2022년 8월 19일 오전 7:25 861 읽음

#대전

#대청댐

#팡시온

남편과 아내는

금년 나이 60세, 동갑이었습니다.

생일을 맞아

서로 축하의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이 때 산신령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대들은 살아오는 동안

부부싸움도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60세 생일을 맞아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줄 테니 말해 보거라”

아내는 너무 좋아서,

“신령님!

우리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행 한번 제대로 못해서 남편과 사이좋게

세계여행을 하고 싶어요!”

산신령은

세계여행 티켓을 아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번에 산신령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의 소원은 무엇이고?”

그러자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어린 여자와 한번 살고 싶습니다”

*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시에 남편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산신령은
아내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더니
남편의 소원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평 소리와 함께

남편은

.

.90살이 되었습니다!

표 ㅎㅎ